

조계종 직할교구는 8월 12일 동국대 대운동장서 '제8회 천진불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 경기지역 30여개 사찰서 5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와글와글 운동회에는 물놀이장, 물축구장이 마련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와글와글~' 신나게 물놀이… 佛心은 '송글송글'

조계종 직할교구, 제8회 천진불어울림 한마당 현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8월 12일, 동국대 대운동장에는 불자 어린이들이 대거 모였다. 미래불교 주역인 어린이 불자들의 신나는 운동회인 '제8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이 열린 것이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개최한 이날 어울림 한마당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진관사, 전등사, 수국사, 장경사, 관음선원 등 서울 · 경기지역 30여개 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진불어울림한마당은 2016년부터 와글와글 운동회로 행사명을 함께 쓰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름방학에 맞춰 앞당겨 열린 만큼 물놀이장을 비롯해 물축구장 등이 마련됐다. 물총 쏘기 게임부터 풀장에서 열리는 축구게임과 공 던지기 게임까지, 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동심과 불심을 함께 키워갔다.

물놀이를 주제로 한 만큼 입재식부터 남달랐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물대포 소리와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져 시원함을 더했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광 스님은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놀이 중심으로 준비했다"면서 "행사 이름인 와글와글 운동회처럼 안전하면서 신나고 떠들썩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짧은 입재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물놀이장으로 달려갔다. 사찰별로 팀을 짠 아이들은 경쟁이 아닌 서로 어울려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형탈을 쓴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물총으로 쏴서 맞추는 팀 대항전이었다. 시작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중앙으로 뛰어가면 아이들은 정신없이 물을 쏘았다. 옆에서 관전하던 지도법사 스님을 향해서도 물을 쏘고, 스님도 함께 대응하면서 물총싸움은 커졌다.

다른 한쪽에서는 초대형 미끄럼틀과 바나나보트를 탄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나된 어린이불자 축제
1000여 어린이 한자리에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만끽

시간가는 줄 모른 채 즐기다보니 어느덧 점심 공양시간이 됐다. 이날 점심공양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도시락으로 마련됐다.

불자들이 모인만큼 남은 음식이 없게 깨끗하게 먹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이 참가 어린이들에게 보시의 방법도 알려줬다.

오후에는 팀 대항 카드섹션 게임과 함께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퀴즈 시간 등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불교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뉜 아이들은 각자의 색에 맞는 카드를 뒤집어 승패를 겨루는 게임을 진행했다.

또 각 사찰에서 마련한 페이스페인팅과 블록 만들기를 비롯해 슬러시 보시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부스도 함께 준비돼 재미를 더했다.

이상훈 어린이는 "조계사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체육대회하고 물놀이하려고 신청했다. 퀴즈도 하고, 악당들이랑 물총 싸움하니까 재밌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참석한 봉국사 신도 유지현 씨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아이들과 해수욕장에 가지 못했는데, 도심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며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도 좋다"며 "최근에는 사찰에서도 물놀이 장이 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사찰로 가서 놀 수 있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아이들 지도법사로 행사에 참여한 도선사 무이 스님은 "가을에 열리는 것보다 방학 기간에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더욱 좋았다"며 "앞으로도 여름철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다른 대회에도 참여했지만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상,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상 등 다양한 상과 상품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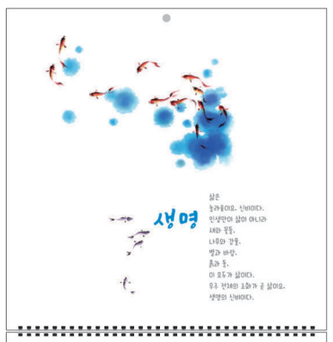
한편,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매년 동참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직할교구에 따르면 2011년 첫 시작 당시 200여 명이 동참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일선 사찰들의 참여로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2017년부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대동한마당으로 꾸려지고 있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광 스님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형탈을 쓴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아이들이 쏘는 물총세례를 맞고 있다.


어린이들은 물놀이장서 뛰놀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동심과 불심을 키웠다.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